

### 찬송가 430장 - 주의 같이 길 가는 것

1.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2.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3.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 하는 대로 주와같이 가겠네
4.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 갈때 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후렴)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 찬송가 310장 - 아 하나님의 은혜로

1.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4. 주 언제 강림 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 곳도 난 알 수 없도다

(후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2023년

# 추석 가정 예배



# 추석 가정 예배 순서

※ 예배 전 유의사항

순서에 들어있는 ‘말씀나눔’은 같이 읽거나  
각자 가정 상황에 맞추어 고쳐서 해도 좋습니다.

개식사 ..... 인도자

오늘은 풍성한 나눔과 은혜를 누리는 추석입니다.  
우리 모두를 함께 하도록 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 송 ..... 430장 ..... 다같이

기 도 ..... 가족 중 한 사람

성경말씀 ..... 신명기 11장 13-17절 (구약 280쪽) ..... 말은이

- 13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 14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 15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 16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므로
- 17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말씀나눔 .....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 ..... 말은이

찬 송 ..... 310장 ..... 다같이

주기도 ..... 다같이

# 말씀나눔

##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설날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입니다. 보통 추석을 '한가위'라고도 표현합니다. '크다'라는 뜻의 '한'과 '가운데'라는 뜻의 '가위'를 합쳐서 '8월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추석은 풍요로움과 넉넉함 속에서 풍성한 결실을 감사하며 맞이하는 명절입니다. 풍성한 수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때에 내리는 '비'입니다. 너무 많은 비가 와도 안 되고, 너무 적은 비가 내려도 안 됩니다.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양의 수분이 공급되어야 그 해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신 11:14)

이스라엘의 여름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건기의 연속입니다. 따라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른 비'는 여름의 건조함을 끝내고 밭갈이에 좋은 땅을 만들어 줍니다. 이른 비가 적당한 시기에 내려야 제때 씨를 뿌리고 비로소 경작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뿌려진 씨는 '늦은 비'를 통해 완성됩니다. 늦은 비는 겨울을 지나는 동안 자라난 농작물이 온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당한 때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풍성한 결실과 열매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만 완성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신 11:13)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비를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려움과 힘겨움이 많았던 지난 시간 속에서도 이렇게 추석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간직하며 주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고 살아가는 가정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이었나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허락하실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언제나 적당한 때에 맞춰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구합니다.